

處格 ‘에’의 意味*

安 明 哲**

I. 序

국어에서 명사구가 어떤 格을 갖는가는 그 명사구 뒤에 오는 格標識인, 格助詞에 의해서 명시된다. 助詞 ‘에’도 이러한 格標識 중의 하나로 어떤 명사구의 格을 명시시켜 준다. 그러나 ‘에’는 국어어 格助詞 중에서도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한 편으로 지금까지 處所, 時間, 到達, 原因, 道具, 授與, 列舉 等の 여러 기능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¹⁾

이런 다양한 ‘에’의 의미기능을 格을 分類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몇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Fillmore(1968 : 21~23)에서 제시된 몇가지의 格設定의 기준——① 하나의 단문에는 같은 격이 두 번 이상 출현할 수 없다. ② 내면에서 同一한 격을 갖는 명사구만이 접속될 수 있다. ③ 어떤 두 격은 하나의 단문에 같이 나타날 수 없다——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가 표시하는 格은 최소한 3가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기에서 處格은 場所만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處格을 말한다.

** 碩士課程(國語學 專攻)

- 1) 지금까지 ‘에’에 대한 論議는 格이나 助詞의 分類過程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최현배 1980, 김민수 1970, 성광수 1979, 김승곤 1980 등). 處格의 ‘에’를 중심으로 다룬 論文으로는 朴良圭(1972), 양동휘(1973) 등이 있고, 全般的인 ‘에’의 基本意味 추출에 대한 시도는 이기동(1981)에서 있었다.
- 2) Fillmore(1966)에 의해 제시된 格文法(Case Grammar)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입장에 서서, 모든 언어가 내면의 의미구조에서 갖는 格의 數가 同一하다는 假定아래 格을 論하고 있다. 그러나 格의 分類基準인 의미의 客觀性 유지가 어려워 Fillmore(1966)에서의 5격이 Fillmore

- 1) a. 지난 밤에 나무가 비바람에 땅에 쓰러졌다.
 ① ② ③
 b. *비바람과 지난 밤에 나무가 땅에 쓰러졌다. (①+②)
 c. *비바람과 땅에 나무가 지난 밤에 쓰러졌다. (②+③)
 d. *지난 밤과 땅에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졌다. (①+③)

즉 1a)에서 표면적으로 同一한 'NP에'가 서로 그 출현에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 文章을 성립시키는 사실과 1a)의 어떤 'NP에'도 b, c,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NP에'가 접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1a)의 3개의 'NP에'가 내면의 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①은 時間的, ②는 原因的, ③은 場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에'는 時間格, 原因格, 處格을 명시해 주는 格標識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에'는 道具의 의미도 나타낸다.

- 2) a. 손을 물에 씻었다.
 b. 종이를 불에 태운다.
 c. 방이 연기에 가득 찼다.

2)의 例에서 '에'는 원인, 시간, 처소의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고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에'는 處格, 時間格, 原因格, 道具格의 네가지 格을 명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³⁾

(1968)에서는 6격으로 다시 Fillmore(1971)에서는 9격으로, Nilsen(1972)에서는 13격으로 그 格의 수가 변하고 있으며 때로는 格의 해석이 文法的次元을 벗어난 現實의 문제도 어떤 기준 없이 고려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格文法에서 제시된 몇가지 격설정의 기준은 內面的 格을 표면에 나타난 제약으로 변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국어의 格助詞 '에'가 갖는 格의 機能을 고려하는데 유용할 듯하다.

- 3) 本稿에서는 2)의 '에'를 도구격으로 보지만, 도구격과 원인격은 그 의미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1) 물에 먼지를 씻었다.
 2) 물에 먼지가 씻겼다.
 1), 2)는 서로가 능동·피동의 관계에 있는 例로 1)의 '물에'는 도구격으로 해석이 되지만 2)는 원인격으로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같은 의미를 지닌 구문이 어떨 때는 도구로, 어떨 때는 원인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가는 주어의 行爲意志가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서술어의 의미

時間格이나 原因格은 그 의미가 動詞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하여 處格은 動詞에 따라 여격, 처소격, 도달격 등으로 그 格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때 이러한 動詞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格을 자기 다른 格으로 設定할 것인가 아니면 處格의 이름 밑에 묶을 수 있는 下位格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점에 대해서 朴良圭(1972: 22~23)는 시간이나 원인 등은 동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차적 위치(Contrastive Position)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處所나 方向은 動詞와의 관계에 의해 自動的으로 決定되는 상보적(Complementary) 성격을 띄고 있어 국어에서는 별도로 處格 외에 도달격이나 여격의 設定이 필요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處格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處格의 意味機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따로 필요한 일이겠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보통 處格 ‘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말할 때,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이나 어떤 대상이 움직여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해 왔다. 즉,

- 3) 옷이 옷장에 있다.
- 4) 영이가 학교에 간다.

3)에서 ‘에’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4)의 ‘에’는 어떤 대상이 움직여 가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의 의미를,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국어에서는 어떤 대상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에’뿐만 아니라 다른 구문에서도 표시된다.

특성과 관련되는 듯하며 이렇게 보면 이 두 격은 道具原因格으로 統合이 될 듯하다. 이때 道具 및 原因을 나타내는 ‘로’와 ‘에’의 의미관계도 규명이 되어져야 할 듯하다. 方向의 ‘에’와 ‘로’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洪允杓(1978)에서 논의된 바 있다.

- 4) ‘ㄷ’는 두 문장의 합의관계를 뜻하는 부호이다.

- 5) 옷에 먼지가 붙었다. (○옷에 먼지가 있다.)⁴⁾
 6) 책상위에 있는 편지를 보아라. (○ 편지가 책상위에 있다.)
 7) 아이들이 뜰에서 뛰어 논다. (○아이들이 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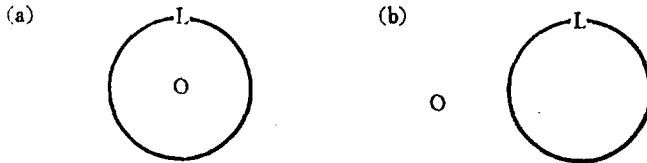
즉 5) 6) 7)은 모두 괄호 안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들 5) 6) 7)의 고딕체로 표시된 부분은 다 같이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르다. 이 경우에 '에'가 단순히 어떤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뜻한다고만 보면 6) 7)의 '에 있는'과 '에서'와의 의미차이를 밝힐 수 없다.

또한 아래의 8) 9)처럼 존재점이나 도달점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는 '에'의 의미기능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 8) 이 장갑은 내 손에 크다.
 9) 일본은 마침내 미국에 항복했다.

따라서 치격 '에'의 의미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각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 점을 위해 어떤 대상(O)이 어떤 장소(L)와 가지는 관계를 먼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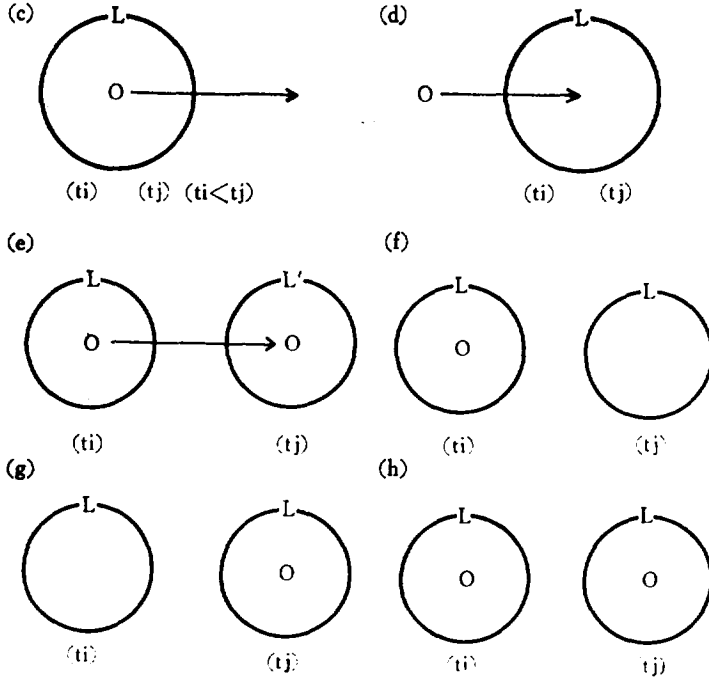
표 1.



어떤 정지된 時點에서 어떤 대상이 어떤 장소와 갖는 관계는 표 1)의 (a)과 같이 어떤 장소 내에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b)와 같이 장소 내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된 時點이 아닌 일정한 時間帶에서는 대상과 장소가 갖는

표 2.



관계는 보다 다양해 진다.

일정한 時間帶에서 어떤 대상이 場所와 갖는 관계는 (c)처럼 t_i 에서 L에 있던 O가 t_j 에서는 L밖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 (d)처럼 t_i 에서 L밖에 있던 O가 t_j 에서 L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두 장소 L, L'를 고려한다면 (c)와 (d)는 (e)와 같이 統攝된다. 또 t_i 에서 L에 존재하던 O가 (f)처럼 t_j 에서는 소멸되어 없어지거나, t_i 에서 L에 존재하지 않던 O가 도중에 생성되어 t_j 에서는 (g)처럼 L에 존재하는 경우와, (h)처럼 $t_i \sim t_j$ 내내 O가 L에서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實在世界(real world)에서 O가 t_i 에서 t_j 까지 L과 갖는 관계는 이보다 더 복잡한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의 言語에서는 한 개의 動詞가 의미할 수 있는 O와 L과의 관계는 표 1)과 표 2)에서 제시된 것 중의

어느 한 가지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보다 복합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L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c)처럼 O가 L을 벗어 나는 경우나 (f)처럼 O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같이 ti에서 O가 L에 있던 것이 tj에서는 L에 O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와 (g)도 O가 ti에서는 L에 없다가 tj에서는 L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도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표 1) 및 2)에서 도식화해 본 대상과 장소와의 관계가 국어의 처격 ‘에’와는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서 ‘에’의 기본 의미를 추출해 보고 아울러 그에 연관된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먼저 ‘에’가 나타날 수 있는 動詞들을 위의 표 1) 및 2)에 따라 분류해 보고 각각의 動詞類에서의 ‘에’의 의미를 動詞類의 의미특성과 관련지어 규명해 본 후에 이와 관련된 몇가지의 문제를 살펴 보려 한다.

II. 처격 ‘에’와 動詞類⁵⁾

2.1. 처격 ‘에’와 共起 可能的 動詞類⁶⁾

국어에서 ‘에’가 出現할 수 있는 동사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⁷⁾

가. 存在의 의미를 갖는 ‘있다’와 ‘많다’, ‘적다’, ‘풍부하다’ 등의 수량표현

5) 이제부터는 ‘에’만으로 처격 ‘에’를 대신한다.

6) ‘에’로 취할 수 없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 웃다, 울다, 공부하다, 놀다, 잊어지다, 출발하다, 사랑하다, 알다, 이다 등

7) ‘에게’는 ‘에’와 先行體言의 有情性 有無에 따르는 相補의 分布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따로 여격의 표지로 보지 않을 것이다.

8) Lyons, J.(1977 : 494)는 移動動詞(Verbs-of-Motion)를 “어떤 실체가 그 물리적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진행을 가리키는 동사”로 규정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영어의 ‘Come’, ‘go’를 들고 있다. 이런 類의 動詞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ove (Entity, Source, Goal)

또, 어떤 실체는 행위자(Agent)에 의해서 그 물리적 위치가 변경될 수

의 형용사류 ('없다'는 '있다'의 否定으로 봄)

나. 移動動詞⁹⁾

- ① 自動詞 : a) 가다, 오다, 오르다, 타다, 내리다, 도착하다 등
b) 눕다, 엎드리다, 앉다, 빠지다, 붙다, 묻다 등
- ② 他動詞 : a) 주다,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안다, 엮다, 심다, 박다, 묻다 등
b) 던지다, 매리다¹⁰⁾ 등

다. 生成動詞¹⁰⁾

- ① 自動詞 : 고이다, 생기다, 나다, 돋다, 탄생하다 등
- ② 他動詞 : 짓다, 세우다, 그리다, 이룩하다, 쓰다(書) 등

라. 非 移動動詞¹¹⁾

- ① 自動詞 : 대하다, 면(面)하다, 주의하다, 함복하다, 찬성하다, 반대하다 등
- ② 他動詞 : 말하다, 명령하다, 질문하다, 약속하다, 여쭙다, 재의하다, 겨누다 등

마. 상대적 의미를 갖는 형용사 :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쉽다, 어렵다, 깊다, 좋다, 쓰다, 달다, 무섭다, 힘들다 등

이상이 대개 국어에서 處格 '에'와 共起할 수 있는 動詞들이다.¹²⁾ 이 動詞들과 '에'가 어떤 의미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다음에 節을 나누어 살펴 보겠다.

있다. 이런 類의 動詞로는 'remove', 'bring', 'take' 등이 있다. 이들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roduce (Agent, (Move (Entity, Source, Goal)))

- 9) '매리다' 등은 보통의 경우 移動의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에'가 쓰이면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 1. 나는 철수를 때렸다(비이동)
 - 2. 나는 막대기를 벽에 때렸다(이동)
- 10) 生成動詞란 필자의 自意的 用語로 '생기다', '생기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 動詞類의 총칭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동사로는 既存의 實體가 어떤 動詞가 의미하는 行爲 結果 사라지거나 소멸되게 하는 消滅동사가 있다. 消滅動詞로는 '없어지다', '꺼지다', '사라지다', '멸망하다', '소멸되다', '지워지다', '제거하다' 등이 있다.
- 11) 非 移動動詞는 이동, 생성, 소멸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動詞類이다.
- 12) 이 외에 被·使動 子문에서도 '에게'가 보인다. 보통 이 '에게'는 行爲主 또는 動作主로 여겨져 왔으나 처격의 '에'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듯하다. 여기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2.2. 그 存在詞 및 數量形容詞와 ‘에’

‘있다’나 ‘ 많다’, ‘적다’, ‘풍부하다’ 등과 같이 형용사 자체내에 어떤 대상이 存在함을 의미(많다=많이 있다, 적다=적게 있다)하는 動詞를 지닌 문장에서 ‘에’는 主語의 存在場所를 의미한다.

- 10) 영이가 집에 있다.
11) 거리에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의 ‘에’는 主語의 存在場所를 뜻하는데 이때의 存在의 의미는 ‘에’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의 의미에 기인하고 ‘에’는 단순히 그 존재의 場所, 즉 主語가 차지하고 있는 空間의 의미를 가지는 듯하다. 이 ‘에’는 後述될 ‘에’의 의미에 비해서 가장 中立的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3. 移動動詞와 ‘에’

移動動詞는 그 動詞가 의미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떤 대상의 물리적 위치에 變動이 생김을 뜻하는 部類의 動詞들이다(이들이 뜻하는 대상과 장소와의 관계는 표 2)의 (c) (d) (e)의 경우이다). 이때 대상 자체가 스스로 그 위치를 變更하는 ‘가다’, ‘오다’ 등의 자동사류와 어떤 행위자가 대상(目的語)의 위치에 變更을 가하는 ‘보내다’, ‘주다’ 등의 타동사류가 있다.

移動動詞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에서 ‘NP에’는 이동되는 대상의 도달점을 의미한다.¹³⁾

- 12) 영이가 집에 간다.
13) 목수가 지붕위에 오른다.

- 13) 移動의 의미를 갖는 他動詞 구문에서 보통 ‘NP에게’를 여격으로 보는 것은 移動되는 대상의 目的地가 有情物이라는 점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1) 2)를 참조할 것)
1) 나는 영이에게 책을 주었다.
2) 나는 꽃에 물을 주었다.

- 14) 나는 영이에게 책을 주었다.
15) 나는 선반에 책을 올린다.

에서 ‘에’는 다 같이 이동되는 대상의 도달점을 의미한다. 이때 12) 13)처럼 이동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는 행위자 자신이 일으킨 행위로 인해 도달점으로 이동하게 되나, 타동사인 경우 행위주는 이동하지 않으며 目的語가 지시하는 대상을 이동시킨다. 자동사와 타동사 구문에서 이동의 의미를 도식화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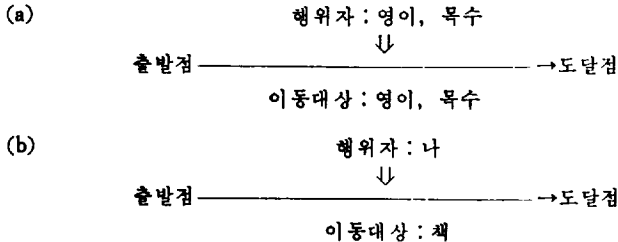


표 3)의 (a)은 12) 13)의 의미이며, (b)는 14) 15)의 의미이다. 표 3)의 (a)과 (b)는 이동동사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는 이동행위 결과 자신이 스스로가 이동하는가 아니면 다른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가를 제외하고는 移動이 주는 근본적인 의미차이는 없음을 보이고 있다.

行爲主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는 自動詞나 他動詞에서 다같이 행위의 지향점의 의미를 갖는다. ‘에’가 행위의 지향점을 뜻하는 점은 다음 예에서도 分明하다.

- 16) 아이들이 물에 돌을 던진다.
17) 포수가 사슴에게 총을 겨누었다.¹⁴⁾

14) 17)에서 ‘에’는 對格의 도달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에’가 도달의 의미를 갖지 않고 단순히 행위의 지향점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는 2, 5에서 논의할 것임.

‘온다’, ‘간다’ ‘주다’ ‘올리다’ 등의 2. 1의 ‘나’항의 ①, ② a에서 든 동사들은 다같이 [-순간]의 相的屬性¹⁵⁾(aspectual character)으로 갖는 動詞로 이들 行爲는 起動點(ti)과 終動點(tj) 사이에 적당한 時間帶를 요구한다(ti<tj). 그러나 ‘붙다’, ‘던지다’ 등처럼 2. 1의 ‘나’류의 ①, ② b의 동사들은 [+순간]을 相的屬性으로 갖는 動詞로 그 行爲는 시작과 동시에 完結이 되게 된다(ti=tj).¹⁶⁾ 이들 동사들은 그 行爲가 순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行爲로 인해 어떤 대상의 물리적 위치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移動의 意味를 갖는 動詞로 볼 수 있다. 즉,

18) 바닥의 먼지가 옷에 붙었다.

19) 아이들이 물가에 있는 돌을 물에 던진다.

에서는 ‘붙다’ 行爲로 먼지가 바닥에서 옷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19)에서는 ‘던지다’ 行爲로 돌이 물가에서 물로 移動을 한다. 이런 점에서 ‘붙다’ ‘던지다’ 등의 동사들은 그 行爲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순간]을 의미자질로 갖고 있는 移動動詞와 그 의미차이가 없다.

2. 4. 生成動詞와 ‘에’

生成動詞는 動詞가 뜻하는 行爲의 결과 結果 이제까지 없었던 대상이 새로 생겨나게 됨을 뜻하는 동사들로 2. 1의 ‘다’의 동사들이 이에 속한다(生成이 지나는 장소와 대상간의 의미관계는 표 2)의 (g)의 경우이다). 이들 生成動詞들은 일반적으로 ‘에’를 자연스럽게 갖는다.

15) 相的屬性(aspectual character)은 動詞 자체에 內在하는 相的 意味資質을 뜻하는 것으로 文法範疇를 가르키는 相(Aspect)과는 차이가 있다. 相的屬性은 相的素性(油谷:1978) 動作類(고영근:1981) 등으로도 불린다.

16) [+순간]을 相的屬性으로 갖는 동사들은 그것이 反復相(iterative)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한 ‘~고 있다’나 ‘~기 시작하다’와 統合되어 질 수 없다.

1) *동환이는 손을 다치고 있다.

2) *철수는 시험에 붙기 시작했다.

동사들의 相的屬性에 대한 논의를 油谷(1978), 정분수(1981), 이지양(1982) 등을 참고함.

- 20) 얼굴에 여드름이 든다.
- 21) 땅에 새싹이 났다.
- 22) 빵에 곰팡이가 생겼다.
- 23)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공장을 지었다.
- 24) 화가가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20)~22)는 生成動詞 중 自動詞를 서술어로 갖는 예로 행위결과 주어 가 ‘NP에’에 생겨나게 된다. 23) 24)는 他動詞의 예로 동사의 행위결과 목적어가 ‘NP에’에 생기게 된다.¹⁷⁾ 행위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에’는 주어의 행위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이 生成動詞는 여러가지 점에서 도달점을 지니는 이동동사와 그 의미구조가 유사하다. 첫째 이동동사의 도달점의 기준에서만 본다면, 처음에 ‘NP에’에 존재하지 않던 대상이 移動의 결과 도달점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점은 생성대상이 生成의 결과 ‘NP에’에 존재한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¹⁸⁾ 또한 행위만을 생각해 보면 移動動詞나 生成動詞는 다 같이 主語의 행위의 지향점을 가르킨다. 이런 점에서 生成動詞의 ‘에’도 移動動詞의 ‘에’와 마찬가지로 도달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非移動動詞와 ‘에’

非移動動詞는 移動動詞와 달리 그 行爲로 인하여 어떤 대상의 물리적 위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生成이나 消滅의 動詞와 달리 어떤 行爲 결과 없었던 實體가 생기거나 있었던 實體가 소멸되게 되는 동사도

17) 일반적인 타동사류는 既存의 행위대상에 主語의 行爲가 作用함을 뜻하는데 반하여 生成의 의미를 갖는 他動詞는 행위결과 대상이 생김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目的語를 특히 結果目的語(Object-of-Result)라고 부른다.

1) 그가 책을 읽는다.

2) 그가 책을 쓴다.

1)의 책은 일반적인 목적어이고 2)의 책은 결과목적어이다. 결과목적어에 대한 점은 Lyons, J(1968: 439)참고.

18) 서론에서 우리는 표 2)의 (d)와 (g)의 의미가 L의 기준에서 본다면 同一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니다(非移動이 주는 장소와 대상간의 의미관계는 표 2)의 (h)이다.

이런 非移動動詞 중에 ‘에’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2, 1의 ‘라’에서 보인 예들이 있다. 非移動動詞에서 ‘에’는 행위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 25) 환절기에는 감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26)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에 면했다.
- 27) (=22) 포수가 사슴에게 총을 겨눈다.

의 ‘에’는 動詞가 移動의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도달점의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 또한 文章內의 어떠한 名詞句의 存在位置도 가르키지를 않는다. 즉 25) 26) 27)은 아래의 25') 26') 27')의 의미를 함의할 수 없다.

- 25') (우리가) 감기에 있다.
- 26')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에 있다.
- 27') 사슴에게 총이 있다.

따라서 25) 26) 27)등의 ‘에’는 非移動行爲의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게된다.

非移動動詞 중에는 보통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로 불리는 一群의 동사가 있는데 이들도 處格의 ‘에’를 지배한다.

- 28) 내가 영이에게 말한다.(명령한다, 질문한다, 제의한다, …)

보통 간접목적어로 보고있는 28)의 ‘NP에게’도 다른 非移動의 의미를 갖는 動詞와 마찬가지로 話行(Speech Act)의 行爲의 지향점으로 ‘에’가 쓰인 것이다.

2.6. 形容詞와 ‘에’

성질이나 속성에 상대성이 있는 形容詞란 그 의미가 다른 대상과 비교에 의해서 정해지는 형용사이다. 가령 ‘크다’와 같은 形용사는 우리의 認知로 그 비교대상을 찾기 쉽지 않은 “우주가 크다”와 같은 절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비해서’ 그 의미 값이 얻어지게 된다. 이 비

교대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때 문장에서 쉽게 생략될 수 있다. 가령 “코끼리가 크다”에서 비교되는 대상이 생략된 점은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人間이나 다른 동물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끼리가 작다”와 같은 문장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끼리보다 큰 비교대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코끼리는 코래보다 작다”와 같이 표현될 때 우리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런 류의 형용사를 갖는 문장에서 ‘에’는 비교되는 대상을 가르킨다.

- 29) 이 장갑은 내 손에 작고, 영이 손에는 크다.
 29') 이 장갑은 내 손보다 작고, 영이손보다는 크다.
 30) *철수는 영희에 크다.
 30') 철수는 영희보다 크다.
 31) 좋은 약은 입에 쓰다.
 31') *좋은 약은 입보다 쓰다.

29)에서 ‘에’는 장갑이 ‘크다’, ‘작다’를 결정해 주는 비교대상이다. 이 비교대상은 ‘에’뿐 아니라 ‘보다’에 의해서도 표현되는데 이들의 의미기능은 결코 같지 않다. 왜냐하면 ‘에’는 ‘보다’ 처럼 어떤 두 대상이 갖는 共通的인 속성의 비교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어떤 空間的 背景을 통하여 어떤 속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空間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29)에서는 ‘손’이 장갑의 ‘크다, 작다’의 속성을 결정해 주는 空間으로 ‘크다, 작다’의 의미는 장갑이 ‘손’의 배경에 있게 되었을 때(즉 착용되었을 때) 결정되나, 29')에서는 단순히 장갑과 손의 물리적인 크기만을 비교할 뿐이다. 따라서 30)처럼 ‘영희’가 ‘철수가 크다’라는 의미의 空間的 背景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에’가 쓰인 경우나 31')처럼 두 대상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속성의 비교에 ‘보다’가 쓰인 경우는 다같이 非文이 된다.

‘에’가 의미하는 空間的 背景은 추상적 空間으로도 쉽게 확장된다.

- 32) 지나친 휴련은 당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 33) 이 길은 차가 다니기에 너무 좁다.
- 34) 이 물건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32)~34)는 ‘건강’이나 ‘차가 다니기’나 ‘사용하기’가 空間的 背景이 되는 예이다.

이 공간적 배경의 추상적 차원으로의 확대는 능력이나 마음 등과 같은 人間의 內面世界까지도 확장된다. ‘쉽다’, ‘어렵다’, ‘무섭다’, ‘좋다’, ‘싫다’ 등의 소위 말하는 主觀動詞를 지닌 文章에서 어떤 대상의 의미는 개개인의 內面世界를 통하여 정해지는데, 이때 內面世界도 구체적인 空間的 背景과 마찬가지로 ‘에’로서 표현된다.¹⁹⁾

- 35) 내 능력에 이 문제는 어렵다.
- 36) 내 마음에 영회가 싫다.
- 37) 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
- 38) 나(에게)는 연회가 싫다.

35) 36)은 ‘문제’와 ‘영회’의 속성이 人間의 內面世界에서 決定되는 예이다. 보통의 경우 능력이나 마음과 같은 內面的 空間은 명시되지 않고 ‘NP에게’로 표현된다. ‘NP에게’가 主題化되면 ‘NP에게는’ 또는 ‘에게’가 생략되어 ‘NP는’이 된다.²⁰⁾

흔히 이 內面的 空間을 경험주 또는 경험적으로 부르는 점은 이 空間이 人間의 思考나 判斷의 主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나 그것이 어떤 대상의 속성을 정해주는 空間的 背景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空間的 背景과 동일하다.

19) 주관동사의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뜻하는 형용사류로 心理動詞, 心理形容詞, 主觀形容詞 등의 用語로도 불린다. 主觀動詞의 統辭·意味論의 特性에 대한 점은 김영희(1973), 이정민(1976), 이익섭(1978) 참고.
 20) 일반적으로 처격의 ‘에’가 주제화될 때 ‘에’는 잘 생략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심리동사의 ‘에’는 주제화될 때 자연스럽게 생략어질 수 있다. 주관동사의 경험주로 보이는 ‘나는’과 같은 명사구가 處格的 主題化라는 점은 이익섭(1978:66~68) 참고.

- 39) a. 나에게서는 이 옷이 크다.
 b. 철수에게는 이 옷이 작다.
 c. 미자에게는 이 옷이 잘 어울린다.
- 40) a. 나(에게)는 이 옷이 좋다.
 b. 철수(에게)는 이 옷이 싫겠다.
 c. 미자(에게)는 이 옷이 좋겠다.²¹⁾

39)에서 ‘옷’은 개개인의 外面的 背景에 따라 크기라는 속성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40)에서 ‘옷’은 개개인의 內面的 背景에 의해서 좋고 나쁨의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다.

2.7. 處格 ‘에’의 意味

지금까지 우리는 각각의 動詞類에서 ‘에’가 갖는 의미를 논의해 왔다. 이들 동사류에서 ‘에’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存在의 意味를 갖는 동사: ‘에’는 존재점을 의미(단 이때 존재의 의미는 시술어가 나타내며 ‘에’는 단순히 위치만을 뜻한다)
2. 移動動詞: ‘에’는 移動對象의 도달점을 의미. 移動을 야기하는 行爲者의 입장에서는 ‘에’는 행위의 지향점을 의미.
3. 生成動詞: ‘에’는 生成對象의 도달점을 의미. 生成을 가져오는 行爲者의 입장에서는 행위의 지향점을 의미.
4. 非移動動詞: ‘에’는 행위의 지향점을 의미.
5. 형용사: ‘에’는 어떤 대상의 속성을 결정해주는 空間的 背景

‘에’는 단순히 어떤 위치만을 뜻하는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 3, 4는 그 공통적 의미가 행위의 지향점에 있다. 따라서 2, 3, 4의 ‘에’는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점은 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들면

- 41) 책상 위에 있는 모자는 나에게 크다.

21) 人間은 心的 世界는 그것이 非可視的 空間이라는 점에서 話者 自身이 아닌 他人의 心的 世界에서 어떤 대상이 갖게 되는 속성은 보통 추측으로 표현된다.

41)에서 ‘모자’가 存在하는 곳은 ‘NP에’로 지시가 된 空間이 아니라 ‘책상’이다. 여기서 ‘NP에’는 결국 어떤 대상의 속성을 결정해주는 공간적 배경일 뿐이다.

따라서 1의 ‘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에’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에’는 도달점이나 지향점 또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만을 갖는다.

III. 도달점 ‘에’와 完成點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에’는 서술어 자체에 存在의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대상이 있는 곳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시된 5)의 경우에 ‘에’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한다. (편의상 5)를 다시 옮겨 쓴다)

5) 옷에 먼지가 붙었다(그옷에 먼지가 있다)

이 때 ‘에’가 주는 어떤 대상의 존재점의 의미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동의 의미가 없는 動詞에 있어서 어떤 대상의 존재점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이 어떤가를 살펴 보자.

이동의 의미가 없는 동사를 갖는 문장에서 어떤 대상이 어떤 공간과 가질 수 있는 관계는 논리적으로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a)과 (b)의 관계밖에는 없다. 이때 非移動動詞에서 보이는 ‘에’는 行爲의 지향점을 의미하므로 어떤 대상과 ‘에’가 제시하는 장소와 갖는 관계는 (b)처럼 ‘에’가 지시하는 장소에 어떤 대상이 없는 경우이다. 非移動動詞에서 어떤 장소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X가 Y에 있다”의 관계문인 “Y에 있는”이나 이에 준하는 관형구밖에는 없다.

42) 책상 위의 책을 보아라.

43)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보아라.

44) 숯엿 밥을 칠수가 먹는다.

42)~44)는 非移動動詞에서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해당 명사구를 “에 있는”의 의미를 갖는 관형구가 직접 수식함으로써 표현됨을 보인다.

‘에’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에’는 위의 관형구와 유사한 통사적 기능을 가진다.

45) 방에 문이 열렸다.

46) 강에 물이 얼었다.

47) 옷에 단추가 떨어졌다.

45') 방에 있는 문이 열렸다.

46') 강에 있는 물이 얼었다.

47') 옷에 있는 단추가 떨어졌다.

45'') *문이 방에 열렸다.

46'') *물이 강에 얼었다.

47'') 단추가 옷에 떨어졌다. (≠47')

45)~47)의 ‘에’는 다른 ‘에’와는 달리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45)~47)은 45'')~47'')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때 ‘에’는 ‘에 있는’이나 ‘의’, ‘에의’ 등의 관형어가 그 수식되는 명사구 앞에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명사구 앞에서만 사용되는 관형어적인 기능을 보인다. 45)~47)의 ‘NP₁에 NP₂’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45''), 46'')처럼 非文이 되거나, 47'')처럼 ‘에’가 도달점의 의미를 갖게 되어 47'')의 의미와 달라진다. 이는 45)~47)의 ‘에’가 일반적인 처격의 ‘에’와는 그 用法이 같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에 있는’과 같이 직접 명사구를 수식해 주는 관계가 아닌 ‘에서’도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할 수 있다.

48) (=7) 아이들이 뜰에서 뛰어 논다. (□아이들이 뜰에 있다)

에서 ‘에서’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서’는 어

면 행위가 일어나는 空間的 背景을 의미하는 것이 기본의미이다. 48)에서처럼 ‘에서’가 어떤 대상(여기서는 행위주)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그 대상도 전체 행위의 空間的 背景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非移動動詞에서 어떤 對象의 존재장소를 직접 나타내주는 방식은 ‘~에 있는’의 의미를 갖는 관형구나 그 상당어구가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명사구 앞에서 수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에 있는’의 의미를 갖는 관형구는 행위가 시작될 때 이미 존재하는 대상의 존재장소를 뜻하는 것이어서 生成의 결과 생기게 되는 對象의 존재장소를 뜻할 수는 없다.

49) *땅에 있는 /*땅의 풀이 났다.

50) *얼굴에 있는 /*얼굴의 여드름이 돋았다.

51) *철수는 종이에 있는 /*종이의 그림을 그렸다.

49)~51)의 動詞는 전부 생성동사로, 이 동사들이 뜻하는 행위로 행위시작시에 없었던 대상(풀, 여드름, 그림)이 나중에 생성되는 것이어서, 이들 앞에 ‘~에 있는’이 出現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非移動動詞의 경우에 대상과 존재점 간의 관계를 논의했는데, 移動動詞의 경우는 보다 다양하다. 移動動詞에서는 移動의 行爲가 시작될 때부터 그 行爲가 완성되었을 때까지 이동되는 대상의 위치는 出發點에서부터 到達點까지로 계속 변하게 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는 이동대상의 위치는, 文章內에서는 보통의 경우 중간과정의 위치는 명시되지 않고 出發點이나 到達點만 명시된다. 移動動詞에서 到達點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로 표현된다. 出發點은 ‘에서’나 ‘에 있는’과 같이 행위공간이나 행위시의 어떤 대상이 존재했던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移動의 의미를 갖는 動詞에서 ‘에서’는 出發點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

되어 왔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을 다음의 예문이 보여준다.

- 51) 영이가 집에서 학교에 간다.
- 52)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다.
- 53) 정원에서 아이들이 꽃에 물을 준다.
- 54) 철수는 마당에 있는 화분을 방에 옮겨 놓았다.

에서 '에서'는 出發點의 의미를 지니는데 반하여 같은 移動動詞를 갖는 52) 53)은 出發點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에서'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임을 알았는데 이동도 그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51)~53)의 '에서'는 이런 이동동사들의 공간적 배경을 뜻한다. 이 중에서 51)과 같이 移動의 폭이 '에서'로 제시된 空間보다 클 경우, 이동 대상은 행위결과 그 空間을 벗어나게 되어서 '에서'는 자연히 出發點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52)나 53)처럼 이동대상의 이동의 폭이 제시된 공간적 배경보다 작은 경우 '에서'는 단지 행위 전체의 空間的 背景만을 의미한다. 移動動詞가 他動詞인 경우 54)처럼 이동대상의 出發點은 보통 해당 명사구(對格)를 직접 수식함으로써 나타낸다.

이동대상의 도달점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에'로 표현되는데 이동 행위는 이동대상이 도달점 '에'에 도달하게 되면 완성된다.²²⁾ 따라서 국어에서 完結을 뜻하는 '았'이 오게 되면 이동대상이 도달점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함의 한다.²³⁾

22) 어떤 행위가 完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모두 거쳐서 완전한 상황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달점이 명시된 이동동사나 생성동사들은 어떤 대상이 도달점에 존재해야지만 그 행위가 완성이 된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도달점이 행위의 완성점이다.

23) 완성점을 갖는 동사들은, '았'과 統合되면 그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뜻하게 된다.

1) 철수는 파란 옷을 입었다.

1)에서 '입었다'의 '었'은 과거의 어떤 時點에서 옷을 입는 행위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행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지양(1982)은 '었'을 완료보다는 완결의 표지로 보고 있다. '었'의 의미기능에 대한 자세한 점은 이지양(198:18~32) 참고할 것.

55)는 행위의 완성결과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예이다.

55) a. X가 집에 왔다.²⁴⁾

- b. X가 옷에 붙었다.
- c. 나는 X를 A에게 주었다.
- d. 영이는 X를 머리에 썼다.

⊃(행위의 완성시에) X가 NP에 있다.

앞서 언급한 5)에서 ‘에’가 어떤 대상의 존재점의 의미를 갖는 것도 ‘붙다’라는 행위가 완결되어서(붙었다) 어떤 대상이 도달점에 있기 때문이다. 생성동사인 경우에도 행위의 完成時에 생성대상이 ‘에’에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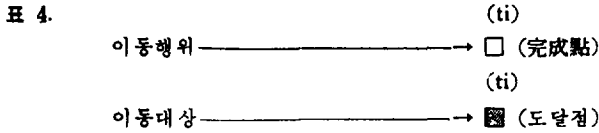
56) a. X가 이 꽃에 생겼다.) ⊃ X가 NP에 있다.
 b. 땅에 X가 났다.

도달점 ‘에’는 결국 행위의 완성점이며, 이동이나 생성행위의 완성시에 어떤 대상이 도달점에 존재하게 되므로 이 경우(완결의 ‘있’이 출현한 경우)에 ‘에’가 부차적으로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가르키게 된다. 행위 완성시에 ‘에’가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붙다’, ‘입다’, ‘쓰다’ 등의 그 행위 결과가 지속적인 동사류에서 특히 강하다.

(55)의 b, d 等)

이동동사에서 도달점과 완성점의 관계를 도식화하던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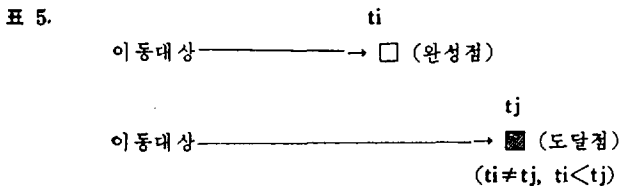
24) “X가 집에 갔다”는 그 자체가 “X가 집에 있다”로 반드시 해석되어 지지는 않는다. 이는 ‘가다’의 의미가 話者로부터 멀어지는 話示的(deictic) 移動行爲를 뜻하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즉 ‘가다’의 행위로 話者로부터 어떤 대상이 非可視的 空間으로 어떤 대상이 옮겨 가게 되면 화자자신으로서는 그 행위의 完成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X가 집에 가다’의 ‘가다’가 완성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다’는 어떤 이동대상 ‘X’가 집에 도착해야지만 비로서 그 행위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동동사로서 '떠나다', '출발하다' 등은 도달점 '에'를 가질 수 없다. 이들이 도달점 '에'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떠나다', '출발하다' 등은 어떤 空間에서 어떤 대상이 벗어나기만 하면 그 행위가 완성된다는데 있다. 즉 보통의 이동동사의 완성점이 도달점과 일치하는 것과는 달리, '떠나다', '출발하다' 등의 이동동사의 행위의 완성점은 이동대상의 도달점과 일치하지 않아서 '도달점=완성점'의 의미를 지닌 '에'가 출현할 수 없다.

- 57) *나는 학교에 출발한다.
- 58) *나는 학교에 떠났다.
- 59) 나는 집에 온다.
- 57') *나는 학교에 출발했다.
- 58') *나는 학교에 떠났다.
- 59') 나는 집에 왔다.
- 57'') 나는 학교로 출발한다.
- 58'') 나는 학교로 떠난다.

57) 58)은 '출발하다' '떠나다' 등이 도달점 '에'를 취함으로서 非文이 되는 경우인데, 이 57) 58)이 非文이 되는 이유는 57') 58')처럼 그 행위가 완성이 되었을 때 도달점(=완성점)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런 부류의 동사들은 도달점과 완성점이 일치되지 않아 '에'를 취할 수 없다. (표 5 참고할 것)



그러나 57'') 58'')처럼 완성이나 도달의 의미를 갖는 '에' 대신에 단 순히 方向만을 의미하는 '로'가 쓰이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IV. 結

지금까지 처적 '에'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이 피상적 각도에서 이루어져 과연 '에'의 의미 규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사실에 대해 정리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 한다.

국어에서 '에'는 존재사 및 수량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와 이 동동사 및 생성동사와 비이동동사와 형용사루에 출현한다. 여기에서 '에'는 존재사 및 수량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動作動詞類에서는 행위의 지향점을(특히 이동동사 및 생성동사에 서는 도달점을) 의미하며 형용사에서 '에'는 속성을 결정해 주는 空間的 背景의 의미를 갖는다.

'에'는 자체내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서술 어에 '있다'의 의미가 있는 경우와 移動動詞 및 生成動詞에서 그 행위가 완성된 경우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을 부차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移動 및 生成動詞 가진 문장에서 그 행위의 완성시에 어떤 대상이 도달점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런 동사에서 완성점과 도달점이 근본적으로 同一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동을 뜻하는 동사라도 그 동사가 뜻 하는 행위의 완성점이 도달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가 쓰일 수 없다. 즉 [+완성]의 의미를 지닌 동사를 갖는 문장에서 '에'는 도달점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완성점의 의미를 제시한다.

이상이 本稿에서 논의한 '에'의 의미기능의 개요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기능을 보이는 '에'가 統辭的으로 어떤 기능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지는 않았다. 이점은 소위 말하는 간접목적어

나 경험주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러했다. 本稿에서는 다만 이런 경우의 '에'도 의미적으로는 다른 처격의 '에'와 일관성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했을 뿐이다. '에'가 갖는 統辭의 기능과, 지금까지 논의된 '에'의 의미가 使・被動의 '에'와 어떤 의미의 유사성이 있는가에 대한 점은 다음 기회로 그 논의를 미룬다.

참 고 문 헌

- 김민수(1970), “국어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 김승곤(1980), “한국어의 格理論”, 인문과학논총 13, 건국대학교.
- 김영희(1973), “한국어의 「주관동사」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4.
- 박양규(1972), “국어의 處格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39, 국어연구회.
- 성광수(1979), 국어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양동휘(1973), “Inner and Outer Locatives in Korean”, 어학연구 8.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의미”, 한글 173~174, 한글학회.
- 이익섭(1978), “피동성 형용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6, 국어학회.
- 이지양(1982), “현대국어의 時相形態에 대한 研究”, 국어연구 51, 국어연구회.
- 정문수(1981),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속성에 대한 연구”, 문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최현배(1980), 우리말본, 정음사.
- 홍윤표(1978), “방향성 표시의 格”, 국어학 6, 국어학회.
-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朝鮮學報 87, 天理大.
- Fillmore, C.J. (1966), “Toward A Modern Theory of Case”, in Reibel

- &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inehart & Winston, Inc., N.Y.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 Nilsen, Don Lee Fred (1972), *Toward a Semantic Specification of Deep Case*, Mouton, The Hague.